

단군(檀君)민족은 이스라엘의 단지파 자손

환단고기에 단군의 출생 신분이 서자로 기록되어 있고

천도교 창시자 수운 최제우 선생도 서자 출신인 까닭은 하나님의 피치못할 사정에서 비롯됨

[1] 은밀하게 장자상속을 단에게 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던 '아브라함'에게서 백세에 얻은 분처 자식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이 옮겨갔다는 사실이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옮겨지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지 아니하고 '단'에게 오셨다(창세기 49장 16-18절)는 것이 또한 성경에 또렷하게 씌어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바로 '심판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의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서자(庶子)로 태어난 단군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늘에서 '이슬 만나'를 내리게 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모세를 통하여 이슬 만나를 내리게 하여 이스라엘 군중이 광야에서 먹고 살다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사명을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에 군대를 4군으로 조직하였는데,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를 합쳐서 제1군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를 합쳐서 제2군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의 지파를 포함해서 제3군으로, '단' 지파를 중심으로 '두 개 지파(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합쳐서 제4군으로 조직했습니다(민 2:25-31).

한 지파에서 5만 명씩 차출하여 15만 명을 1군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갈 때 '단' 지파는 북쪽을 담당하게 되었고 고로 일명 북군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당시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분처 라헬이 낳은 자식으로 옮겨질 줄 알았습니다. 즉 장자 상



▲ 단지파의 이동 경로

속을 요셉이 받게 될 것으로 형제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 장자 상속을 빼앗기 위해서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는데, 후에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볼 때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갔다고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역대상 5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요셉을 일찍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을 일찍이 죽이려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품속 숨기 위해서 서자(庶子)의 몸을 이용해서 작전을 펴셨던 것입니다.

'라헬'이 야곱의 분처이지만 수태하지 못하여 몸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간청하여 자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단'입니다. 그래서 '단'이 서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야곱과 함께 계시는 때 야곱이 '단'에게 장자 상속을 해버린 것입니다(창세기 49장 16절).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은 만약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이 갈 것을 알면 마귀가 죽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자에 장자 상속을 할 줄이야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분처 자식인 '이삭'에게 장자 상속을 하였고, '이삭'도 역시 분처 자식 '야곱'에게 장자 상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전례를 따라서 야곱도 분처 자식에게 장자 상속을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례에 따라 장자 상속을 하게 되면 마귀가 죽일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살피기 위해서 단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신을 숨겨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단고기(檀檀古記)'에 보면 단군이 '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단군이 왜 서자(庶子)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첩의 자식 역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작전상 분처의 자식에게 장자 상속을 하게 하고, 이삭도 분처 자식에게 장자 상속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빌하'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자랄 때에는 '라헬'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라헬'을 엄마라고 부르고 '빌하'를 유모라고 불렀던 것입니다(창세기 30장 3절).

[3] 단지파를 동북쪽으로 보내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단' 지파를 왜 동북쪽으로 보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 중에 선민인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놓아두면 모조리 전멸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쫓아내서 동쪽 끝 해 돋는 땅에 옮겨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무솔리니와 히틀러, 스탈린 등이 유대인을 모조리 학살했던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는 마귀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우리 한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우리 민족을 동방의 땅 끝, 땅 모퉁이에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라라. 땅 끝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일

으키리라' - 성경 이사야 41장 1-9절)

[4] 단지파의 동방 땅 끝의 한반도까지 이동 경로

청장년들을 모두 15만 명씩 4군으로 조직을 하여 '가나안' 복지를 쳐들어갈 때에 제 4군이 되는 '단' 지파는 북쪽을 담당했습니다. 단지파가 가나안 최북단 라이스 땅을 점령한 이후부터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기업을 북쪽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소라' 성읍과 '마하네단'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하여 단지파는 200년간 가장 강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단지파 군대 내에는 '삼손'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삼손' 장수를 유혹하여 삼손 장수를 포로로 잡아 블레셋 군대에 넘겼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던 사당 두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블레셋 고관 장수들과 함께 압살당하고 맙니다. 삼손이 거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나라는 물론 단지파 군대의 사기도 완전히 떨어져 전의를 상실하고로 단지파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의 일입니다.

단지파가 오래 머물러 있던 땅으로 지금도 '단'이라는 지명이 시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단지파가 지금의 레바논 동쪽을 떠나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거쳐 카스피 바다를 건너고 중국 북부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1~2백년 우거하면서 기성세대는 다 죽어 그 땅에 묻히고, 제2세대는 자라면서 그곳에서 적응하여 '알타이' 언어를 배우면서 '히브리' 모국어를 접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단지파는 알타이산맥을 넘어 몽고 쪽으로 넘어와 만주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도착한 후 대동강변에 자리 잡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고조선(古朝鮮)을 세웠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31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 미륵부처님께서 온 우주를 자유 자재로 날아다니시고 한 몸을 보이시며 (분신의 능력) 항하(恒河)의 모래와 내리는 빗방울 수효까지 아신다. ...

(지안호에 이어)

《열반경 권 24 (涅槃經 卷 二十四)》

於未來世 佛出現之時
어미래세 불출현지시
미래에 부처가 세상에 나올 때는

國土所有一切衆生 得壽命長 有大勢力 獲大神通 국토소유일체 중생 득수명장 유대세력 확대신통

국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큰 세력을 가지고 큰 신통력을 얻는다.

以是三昧因緣力故
이시삼매인연력고
이것은 삼매 인연의 힘 때문이다.

여래의 힘은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큰 신통력(神通力)을 모든 불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도 한다. 따라서 미륵부처님께서 법(法)을 설하는 곳에 있는 제자들은 미륵부처님의 신통력(神通力)을 쉽게 나누어 받게 된다.

이삼전심(以三傳心)의 비법이다. 미륵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을 받는 것이며, 이것은 성불(成佛)하는 근본 이치이다.

分身遍滿一切刹 放淨光明除世間
분신편만일체찰 방정광명제세암
몸을 나누어서 이 우주에 가득차게도 하시며 맑은 빛의 광명을 내보내시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제거하신다.

一念分身遍十方 霍甘露雨滅煩惱
일념분신편십방 호감로우멸번뇌
한 생각하는 가운데 분신이 되어 사방 세계에 두루하여 감로의 비를 내리셔서 번뇌의 불을 끈다.

번뇌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번뇌다. 미륵부처님은 그 모든 망상, 모든 마귀를 다 말해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원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서 누구든지 부처를 만드신다.

一切動心憶想分別
일체동심억상분별
일체 중생의 마음 움직이는 것이나 생각하는 상을 일일이 다 분별하신다.

타심통(他心通)을 일컬음이다. 미륵부처님께서 사람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며,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조차도 아신다.

미륵부처님의 능력은 이처럼 어머니 마하시다. 중생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일이 분별하시며, 풍운조화(風雲造化)를 마음대로 하시며,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신다. 또한 사람의 악한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 심령을 정결케 하신다.



생미륵부처님의 분신(分身), 감로 이승성신 △

보배로운 광명(감로 광명, 이승성령)이 구름덩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부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은 미륵여래의 사찰(寺刹 : 승리제단)에서 자유 자재로 행하여진다.

화엄경에 기록된 여래(如來)의 능력은 무한하며, 이는 부처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사된다. 화엄경은 여래의 다채로운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며, 특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법을 설하며, 우주를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로 묘사한다.

무한한 지혜와 자비: 화엄경에서 여래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으며, 만물이 부처님이요 또한 만인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시어 모든 중생을 다툼과 고통에서 구원하고 진리를 깨닫게 한다.

신통력: 여래는 순간 이동, 변신과 분신 능력,



다른 세계로의 왕래 등 다양한 신통력을 보여주며, 이는 중생의 이해를 돕고 깨달음을 얻도록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광명(光明): 여래는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감로 광명을 통해 중생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으로 이끌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중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성불에 이르게 한다.

수행의 결과: 여래의 능력은 오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며, 화엄경은 이러한 수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무애재(無礙自在): 화엄경에서 여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체 중생 구제: 여래는 모든 중생을 차별 없이 구제하려는 원을 세우고 실천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